



## 강은규(김양희)선교사 선교편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다...(히4)

살롬!

캄보디아 바탐방에서 강은규 선교사 캄선교회 가족에게 문안드립니다.

건기 절정기인 3~4월에 38도까지 치솟는 뜨거운 열기 속에 선교의 열차는 힘차게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주사랑교회 김만배 목사님, 공용준 목사님, 부총장 신명동 목사님이 바탐방 신학교에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교물품으로 캄선교회 6가정 모두에게 모두 나누어 주셨습니다. 또한 6대의 컴퓨터를 보내주셔서 각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캄보디아 선교현장에서 있었던 사역들을 보고드립니다.

### 1) 헌당예배

안농로비어 창녕선교교회 헌당예배(3월13일-창녕선교교회 후원)와 트모끌웅촌교회 헌당예배(3월 21일-울산 웅촌교회 후원)를 드렸습니다. 각 교회 성도님 19분과 12분이 찾아주셔서 현지인 400여명과 350여명이 헌당예배에 참석하여 예배와 울동,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2) 흰돌교회에서 선교사를 위한 여러 음식과 식품을 공수해 주시어 현지인들과 캄선교회 선교사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한 본부 대표 김만배 목사님의 동의를 얻어 울산 흰돌교회에서 캄보디아 파송선교사로 임명받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영혼구원의 시급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어둔한 저를 사용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3) 바탐방 뿔스바우교회 교역자 세이하를 통해 교회가 자립하기 위한 첫 단계로 양계 시작 양계훈련을 3개월 이수한 후 닭(전통 캄보디아 닭) 310마리로 시작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와 준비

로 양계사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돼지 사육을 위해 돈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주님의 도움으로 많은 생명들이 탄생할 것입니다.

### 4) 한방병원과 선교사관 입주예배

3월 29일 저녁 6시~9시까지 현지인 사역자 부부, 각 은행직원, 병원, 바탐방 신학교 학생들, 법조계, 정부요원, 주민들, 성도님들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주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강선교사 부부의 10년의 캄보디아 선교사역의 발자취를 슬라이드를 통해 화면으로 보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배, 찬양, 울동, 불꽃놀이, 음식을 나누면서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한방병원과 선교사관 건축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함께하신 모든분과 교회위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 5) 뽕삿 성북교회 건축 시작

성북교회에서는 성전을 건축하되 100년을 내다보고 튼튼하게 지어야 한다면서 당회에서 2회 방문하여 지금 뽕삿시에 교회를 건축 중입니다. 휴게실, 공부방, 성전, 욕실, 화장실, 사역자 사택, 정원조성, 등 1,500평의 부지에 저수지를 포함해서 예쁘게 단장되어 가고 있으며 건물은 총97평, 건축예산은 12,000만원입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탄생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6) 몽르싸이 성남교회 건축

캄보디아 몽르싸이 성남교회 성전건축이 98% 공정 되었습니다. 마무리 작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에 헌당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 7) 바탐방 어린이 성경학교가 열림

지난주 (3/26~29)바탐방 전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이 모여 성경학교 교사강습회를 마치고 4월2~4까지 주일학교 성경학교가 열립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참석하여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제목>

1. 말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2. 매순간 기도로 준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3. 겸손함으로 현지인들을 섬길 수 있도록
4. 현재 건축중인 교회와 헌당예배를 위해서
5. 선교센터 건축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6. 캄선교 캄보디아 바탐방 지교회들이 믿음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7. 43명의 믿음의 공동체가 주안에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8. 강선교사 건강을 위해서(심장, 간)
9. 4월8일 흰돌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을 은혜스럽게 받을 수 있도록



캄보디아 뽏삿 성북교회 기공예배



몽르싸이 성남교회 98%공정 모습



트모꼐 울촌교회의 헌당예배모습

주후 2012년 4월 1일 캄보디아 바탐방에서  
선교사 강은규 김양희 올림

## 송촌명(현정미)선교사 선교편지



캄보디아 바탐방에서 방파선교회와 캄 선교회 그리고 경남노회와 후원해주시는 여러 교회 식구들과 후원자님들에게 또 리은 꾸어(보충수업비)없는 학교 만들기 운동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원하며 3월 선교편지를 보내드립니다.

캄보디아의 3월은 무더위의 절정으로 가는 계절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더위에 지쳐있는 모습입니다. 이 기간 동안 모든 학교들은 방학을 하고 4월 13일부터는 15일까지는 쫄 츠남 크마에(캄보디아 새해) 휴일인데 예전에는 새해 전 한두 주간과 새해 후 한두 주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모두들 고향을 찾고 결혼식도 가장 많이 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요즘에 와서는 상황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마는 시끄러운 결혼식이 많은 것은 여전합니다.

### 2012년 3월 달의 저의 사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에는 바탐방 신학교에서 목회자연구원을 개설하기로 하고 준비를 위해 바탐방 신학교에서 바탐방 신학교 관계자들의 연석회의를 인도하였습니다.

6일 오전에는 세계로 열린 선교회에서 개척하여 세운 언론티비어 교회와 센터 헌당예배에 참석하고 오후에는 바탐방 신학교 총장이신 공용준 목사님으로부터 교수임명도 받고 목회자연구원 원장의 보직도 받았습니다. 방파선교회 총무이신 김영곤 목사님과 이사님들도 오셔서 캄보디아에서 이사회도 모였습니다.

9일에는 경남노회 성은교회의 오구식 목사님 내외분과 장로님이 바탐방에 오셔서 반갑게 만나 뵙고 선교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후에는 바탐방 목회자 모임에 참석하여 오는 부활절 행사를 위해 의논하였습니다.

10일 토요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세례 받을 학생들에게 문답공부를 시켰습니다.

13-15일까지는 따끄마오 명성수양관에서 성민교회 한홍신 목사님과 말레이시아 서용석 선교사님을 강사로 개최되는 사명자 성회에 버스를 대절하여 23명을 데리고 가서 참석시켰습니다.

15일에는 성민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모임에 참석하여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6일에는 바탐방 신학교에서 새로 부총장으로 부임하신 신명동 목사님의 상견례와 19일에 안식년으로 출국하시는 천준상 선교사님의 송별식을 가졌습니다.

17일에는 의사선교사로 오신 정광수 선교사님이 따님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에 가시면서 초대해 선교사님이 운영하시는 카페에서 대접을 받았습니다.

18일 주일에는 그동안 반주자로 수고했던 공서연 선생님이 임기를 마치고 귀국하게 되어 송별회를 가졌습니다.

21일에는 바탐방 신학교에서 목회자연구원이 개설을 위하여 바탐방에 있는 현지 교단대표를 초대하여 회의를 인도하고 오는 6월 19일에 개강하기로 하였습니다.

26-28일까지 바탐방 지역교회들의 어린이캠프를 열기위해 CEF(어린이전도협회)에서 개최하는 교사강습회가 있었습니다.

29일에는 바탐방지역 목회자 모임에 참석하고 강은규 선교사님 사택입주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30일에는 이상로 선교사님의 생신이어서 선교사님과 한인교회 교인들을 우리 집으로 초대하여 생일파티를 해드렸습니다.

31일에는 10명의 학생들에게 세례문답시험을 치르고 문답을 실시하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렇게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선교의 도구로 쓰임 받으며 바탐방 한인교회를 섬기고 학사에서 시작된 어린이예배를 인도하고 있으며 바탐방 신학교에서 강의도 맡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학사학생들과 매일 새벽기도회로 모이고 한국어 반도 하루에 총 6개 반을 가르치고 중국어 반도 열어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탐방 현지목회자의 자녀들을 돕기 위한 학사사역을 통해 12명의 학생들을 돌보고 있으며 리은 꾸어(보충수업비) 없는 학교 만들기 운동을 시작하여 이번 달에는 총 61명의 학생들을 후원하며 현재까지 잘 감당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시작한 목회자를 위한 세카 살라(세미나)를 분기별로 개최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오는 5월 29일부터 바탐방 신학교에서 세미나를 열게 되었고 6월 19일부터는 바탐방 신학교에서 목회자연구원을 개설하여 2년제로 체계적인 목회자교육을 통하여 현지교회들의 영적 갈급함을 채워가려고 합니다. 이일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춘중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시작한 암소은행도 은혜가운데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위한

여러분들의 계속된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 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시편 37:25-26)

### <기도제목>

1. 하나님의 온전한 선교의 도구로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2. 열악한 현지의 영적환경 속에서 성령 충만하여 영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3. 가난한 아이들의 교육을 뒷받침하여 사람을 키우는 선교를 할 수 있도록
4. 한국어수업을 도우며 한국어로 성경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하여
5. 리은 꾸어(보충수업비) 없는 학교 만들기 운동과 학사운영을 위하여
6. 학사에서 시작된 어린이예배가 온전한 교회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7. 목회자를 위한 세카 살라(세미나)를 분기별로 개최하는 일을 위하여
8. TASK 재단과 바탐방 신학교와 목회자연구원의 운영을 위하여
9. 이재원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10. 기도와 물질의 지속적인 후원을 감당하는 교회와 모든 분들을 위하여

주후 2012년 4월 2일  
바탐방에서  
선교사 트모(석편) 송춘명 헌정미 올림

## 최예순선교사 선교편지

사랑하는 동역교회와 가족들께  
그간에도 많은 사랑과 기도와 후원으로 동역 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시 선교지를 비운 사이에도 최반석 집사님의 수고로 아름다운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회를 이런저런 핑계로 잘나오지 않던 가정들이 많이 나오고 믿음의 진보가 있어서 감사 합니다.

이제는 온 동네가 교회로 인해 복을 받았음을 시인 하며 꺼꿍이 복을 많이 받아서 일거리가 없어서 끼니를 굶던 동네가 이젠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하며 온 동네가 아침 인사를 안녕 하세요?를 외치며 나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께서는 이젠 생활의 복을 허락 하시고 부부가 다 출근 하는 가정을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기도 중입니다. 이곳 꺼꿍에 와서 기도하기를 3년 소일 꺼리가 없어서 일 좀 있으면 달라고 날마다 오던 성도 들이 이젠 일꾼 구하기가 힘들어서 한 열흘 전 부터 교회원두막 초가지붕을 다시 올리려고 이영을 사다 놓고도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꺼꿍에 있는 인력만으로는 부족 하여 타 주에서 인력이 보충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던 기도가 응답 되어가는 것을 눈으로 바라보며 새삼 기도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성도 중 72세의 면이라는 할머니는 자녀들을 폴포트에게 모두 빼앗기고 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위장병이 심해서 고통가운데 있었는데 날마다 죽을 수어 드리고 한국의 좋은 약을 쓰며 날마다 기도 했는데 이젠 거뜬히 일어났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영양이 부족 한데다가 음식을 너무 짜고 달게 먹으며 영양부족 과 고혈압은 물론 위장병이 심하고 당뇨병도 많습니다. 주일이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 하므로 성도들이 많이 호전 되고 있습니다.

이번 고난 주일에는 패션 오브 지저스(CD)를 보고나서 주사랑 교회에서 가지고 온 성찬기로 성찬식을 가졌으며 오륜교회 정구성 집사님의 후원으로 부활의 아침에는 200개의 계란을 삶아서 나누어 주고 가난한 성도에게는 100kg의 쌀을 나누어 주어 몇 일 후의 쫄츠남<구정 설날> 을 준비 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던 컴퓨터도 주사랑 교회 한 태원 집사님을 통해 4대를 설치하고 저녁이면 청년 들이 모여 성경 읽기와 기도회를 가진 뒤 한 시간씩 연습을 합니다. 기도 하는 것마다 한 가지 한 가지 채

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그동안 6개월 사역자로 일 하던 소피움이 짚이암 교회를 전임 하기로 하고 바클링 교회의 사역자 빠우가 주일 설교를 맡았습니다. 매일 오후 2시 부터 한 시간 기도와 말씀을 보고 3시부터 전도와 심방을 나갑니다. 요즘은 매주 목요일 현지 교회와 함께 돌아가며 연합으로 전도를 합니다. 짚이암 교회는 100\$짜리 기타를 한대 샀으며 센터 교회는 중고이긴 하지만 신디를 170\$에 한대 구입 했으나 아직 서툴러서 음이 엉망 입니다. 음악 학원도 없어서 가르칠 수 없지만 열심히 연습 하면 잘되지 않을까요?

늘 애기를 해도 말을 안 듣던 성도들이 요즘 예배 태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믿음이 날로 성장 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 입니다. 한시라도 긴장을 늦추면 여지없이 공격해 오는 사단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얼마 전엔 프놈펜에서 선교사님 들이 피서를 오셔서 따따이 폭포를 다녀왔습니다. 꺼공에는 폭포가 많아서 지금 한창 댐 건설 중인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태국에서 수입전기를 쓰지만 얼마 안 있어서 썬 전기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한국보다 더 비쌉니다. 물 값과 전기 값이 한 달에 100\$ 이상 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지경을 넓히며 나아갑니다.

### <기도제목>

1. 성령이 충만 하도록
2. 전도의 열매가 날마다 맺히도록
3. 신학교가 꺼공에 세워지도록
4. 성도들이 성령을 체험 하도록
5. 중고등부의 부흥을 위해<주일에 과외수업금지를 위해>
6. 사역비가 모자라지 않도록
7. 자녀들이<현중 .현민>신앙을 위해 <좋은 직장>  
현민<신학교 등록>
8. 치과 치료비가 채워 지도록
9. 건강을 위해서
10. 개척된 짚이암과 바클링 교회가 잘 부흥되도록

주후 2012년 4월 10일 캄보디아 아름다운 꺼공에서  
선교사 최예순 올림

## 정혜란 선교사 선교편지

발로아첸 ~~!

기도해주시는 덕분에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기도 해주시는 것에 늘 감사하고 귀하고 저에게는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아마 천국에 가면 주님께 함께 똑같이 상을 받을수 있을 것 같아 기대도 됩니다.

바띠아리 교회는 제가 올해 모든 것을 다해서 집중하여 살려내고 싶은 그런 교회입니다. 힌두 마을 중앙에서 지금까지 교회가 힘이 없어서 손가락질을 받는 가운데 있어서 많이 힘들었는데 올해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려고 일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강도 만난 자들 같은 바띠아리 마을의 모든 사람들을 전인격을 변화시키고 새 삶을 주시고, 비참한 가난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 없고 다른 길이 없음을 믿기에 편지를 보시고 집중적으로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바띠아리 교회 이야기 ~~

APAB의 역사의 모태가 되었던 바띠아리 마을 중심에 건물은 초라하지만 교회가 자리 잡고 있다.

힌두마을 중심에 교회가 세워져 매주 예배가 들려지고 있다는 것이 마치 기적과도 같다고 생각하며 감사하곤 한다.

APAB 정대표님 부부께서 91년 치타공에 내려 오셔서 20만명이 죽는 큰 사이클론(cyclone)이 일어나 이 마을 이 물에 잠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과 재산과 집을 잃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 앞에서 주의 사랑으로 밥과 죽을 끓여 주고, 침으로 진료를 해 주는 가운데 외국인이 가난하고 열악한 자신의 마을에 와서 아무런 댓가도 바라지 않고 섬기는 것을 보고 마을 사람들은 큰 감동을 받아 '당신들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라고' 허락을 해 주었다고 한다. 그래서 92년에 대나무 건물과 흙바닥에 거적을 깔고 시작한 주일학교는 2백명의 아이들이 참석하게 되었고, 마을의 부지도자의 엄마가 자신의 자녀가 배우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며 학교를 해 달라고 부탁하여 지금의 바띠아리 학교가 태동하게 되었다.

주일학교와 학교를 운영하면서 얻어진 마을 주민들과의 깊은 신뢰감과 믿음을 바탕으로 96년에 바띠아리 교회 건물이 세워져 장년 예배가 드러지면서 점차 마을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5명이나 세례(침례)까지 받으며 교회에 사람이 았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넘쳐나는 부흥이 있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자 마을 사람의 신고로 대표님 부부를

미행하고 조사하고 지역 신문에도 몇 번씩이나 보도 되어 위험에 처하게 되어 98년부터 바띠아리 교회에서 물러나면서, 현지인 목회자가 섬기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교회가 힘을 잃어 가게 되었다. 10년을 넘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교회는 점차적으로 문을 닫아야 할 지경까지 이르자, 대표님은 고민을 하시다가 저에게 교회를 돌아 볼 것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2010년 10월부터 바띠아리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했다. 매주 2~3명이 앉아서 힘없이 앉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너무나 막막하고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아 낙심도 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주저앉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다.

둘라 아저씨가 작년 11월말쯤에 심장이 안 좋다고 하면서 방갈리 의사에게 갔더니 수술해야 한다고 하면서 많은 돈을 요구를 한다며 미국인 선교사들이 하는 병원을 소개해 달라고 해서 박금란 사모님의 도움으로 병원에 다녀왔는데 일주일 약을 먹고 심장이 좋아졌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간증을 하면서 그때부터 교회에 열심히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8살짜리 뷰티 여자 아이가 오른쪽 눈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한다며 교회에 아이를 데리고 나오자 둘라 아저씨가 “자신을 고쳐주신 하나님께서 눈도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간증을 들으면 뷰티 엄마는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방갈리 병원에서는 뷰티의 눈이 더 나빠지고 좋아질 수 없다고 해 낙심하는 가운데 다행히도 한국에서 오신 안과 선생님께 눈을 보였더니 성장기라 2~3년 안으로 좋아 질 것이라고 하여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다. 둘라 아저씨가 1월 중순경에 선박 폐선하는 곳에 가서 2일 동안 일을 한 후에 디스크가 오게 되었고 반수불수가 될 수 있다 진단이 내려졌다. 방글라 2~3군데 병원에서는 엄청난 돈을 요구하며 수술을 하여도 장담할 수 없다고 하여 미국인 병원에서는 수술할 수 없다고 하자, 돈이 없어서 수술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제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다

둘라 아저씨에게는 ‘뽀뽀’라고 하는 중3학년 되는 딸이 있다. 2년 전 그 마을에 일하러왔던 22살 무슬림 청년이 학교가 끝난 3시경에 납치를 해가지고 5시간 되는 멀리 떨어진 곳으로 데리고 갔다고 한다. 납치를 한 다음에 바띠아리 마을에 사는 친구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서 알리고, 그 아저씨는 둘라 아저씨에게 가서 ‘당신 딸이 납치 되었으니 빨리 가서 데리고 와야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왕복 차량 렌트비로 4만 다카를 빌려주고, 이 사건으로 둘라 아저씨는 심장병이 생겼고 병원비와 약값으로 다시 6만 다카를 빌리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 10만 다카를(170만원) 갚으라고 재촉을 하며 90평되는 땅을 넘기라고 하면서 서류에 사인을 하지 않는다면 뽀뽀의 납치 사건을 온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겠다고 협박을 하여 울면서 땅 서류에 사인을 했다고 한다.

2년이 지난 지금도 그 사건을 이야기 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얼마에 땅을 팔았느냐 물어 보면 자신들은 딸의 앞길이 막힐까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다”며 눈물을 흘린다.

힌두교 아저씨는 땅을 빼앗아 둘라 아저씨 바로 집 앞에 가게 5개를 지어서 임대를 주고, 장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뽀뽀가 다시 납치를 당할까봐 학교도 중단하고 집에 갇혀 지내고 있다. 이런 어려운 일이 겹쳐오자 주중에 교회에 3번씩이나 나와서 혼자 기도도 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면서 마지막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다 함께 기도하고 있다.

이제 둘라 아저씨 부부는 말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뽀뽀도 1월말부터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얼굴이 밝아지면서 다시 학교에 가고자 하는 소망으로 품고 기도를 하고 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집안에 있는 ‘힌두 우상단지’를 동네 사람들이 두려워서 치우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3/9일 예배 후 집을 방문했다 그 집에 들어서자마자 부인과 뽀뽀는 나를 붙잡고 ‘당신이 한쪽 발은 교회에 한쪽은 힌두교에 두고 있다’고 해서 자신들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해서 우상단지를 갖다 버렸다고 하면서 온 집안을 보여주었다. .

바띠아리 마을은 약 600명, 4인 가족이 8-10만원을 가지고 생활을 가난한 마을이며 힌두교 95%, 무슬림이 4.5%로 구성되어 있으면 힌두교에서는 매년 4~5회 몇 백만원짜리 우상을 만들어 놓고 2-3일 동안 밤새도록 스피커를 크게 틀어놓고 힌두 축제를 벌인다. 둘라 아저씨가 땅 주인인 교회 앞 넓은 마당, 즉 하나님의 성전 앞에 큰 무대 위에 힌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축제를 하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울분이 일어났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은 바띠아리 힌두 마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들어나기를 소원한다.

바띠아리 마을의 지도자인 둘라 아저씨가 걸어 다니지 못하는 것과, 뷰티의 눈이 안 좋은 것을 마을사람들이 지켜보고 주목하고 있기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바띠아리 온 마을 사람들이 목도하여 보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작년까지는 일주일에 금요일 오전 예배 딱 한 번에 드렸는데 올

해가 되면서, 매주 구역예배, 심방도 하고 주중에 기도모임도 하며 예배도 전심으로 준비하여 드리는 가운데 3월9일 금요일- 주일예배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4명이 나와 13명이 함께 예배를 드렸다. 또한 15년 전에 정대표님께서 뿌려놓으신 깊이 묵혀 있던 믿음의 씨앗들이 교회에 관심을 보이며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것들을 느끼며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고 계심을 느낀다.

이번주일부터 주일예배를 알리는 종을 3회에 걸쳐 치겠다고 한다. 종소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주심으로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아와 예배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올해의 바띠아리 교회의 목표는 50명 이상의 성도가 예배를 드리고, 성탄절에 교회 앞에 큰 무대를 만들어 놓고 성탄절 행사를 통하여 바띠아리 온 마을에 찬양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처럼 비백 전도사와 함께 최선을 다 하고자 한다. 또한 힌두교가 바띠아리 마을을 수십 년간 꼭 잡고 있었기에 쉽게 영혼을 내어주지는 않을 것이고, 바띠아리 교회가 부흥을 하려면 엄청난 영적 전쟁을 한번은 치러야 한다는 생각이 기도할때마다 든다.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다가올지는 모르지만 기도로 무장하고, 각오하고 준비할 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NGO직원으로 비자를 받았기에 3개 초등학교 관리자로써만 일을 할 수 있기에 바띠아리 교회에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외국인의 종교 활동은 불법이기에 보안문제가 있어서 길에서 성도나 비백 전도사를 만나도 모르는 척해야 하며 심방도 할 수 없고, 사진을 같이 찍을 수도 없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뒤에서 기도하며 도와주는 것이 전부이다.

그러나 이 힌두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고 외국인이 내가 그 교회에서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나 감사할 뿐이다. 바띠아리 힌두 마을에 교회가 살아남으로 인하여 2012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점에서 여러분의 간절한 중보기도가 필요하여 요청합니다.

### <기도제목>

1. 2012년 50명 이상의 성도들이 채워주시길
2. 바띠아리 온 마을에 찬양이 울려 퍼져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 받으실 수 있기를
3. 둘라 아저씨의 디스크와 뷰티의 눈을 하나님께서 4월말까지 치료해주셔서 온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기를
4. 온 성도들이 '성령체험'을 할 수 있기를 - 온 교회안에 죄 고백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길
5. 기타를 칠 수 있는 '찬양 사역자'를 보내 주시길

감사합니다. (던노뵈!) 정혜란 드립니다. 2012. 3. 20

# 후원자별 후원금액 명세

(2011년 11월)

헌금자	날짜	금액	비고	헌금자	날짜	금액	비고
온세교회	1	100,000	감선교회	주혜정	1	10,000	송춘명(국민)
양문교회	2	1,200,000	감선교회	감계순	1	20,000	송춘명(국민)
정경숙	3	10,000,000	감선교회	남석교회	4	50,000	송춘명(국민)
박미화	3	-5,000,000	감선교회	새누리교회	6	200,000	송춘명(국민)
잠실제일교회	4	100,000	감선교회	조미숙	5	20,000	송춘명(국민)
임종열	8	734,000	단기선교	해운동부교회	23	100,000	송춘명(국민)
허현, 김소희	9	1,468,000	단기선교	남석교회	25	50,000	송춘명(국민)
이현주	9	500,000	단기선교	새누리교회	27	200,000	송춘명(국민)
김종철	16	5,000,000	감선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28	100,000	송춘명(국민)
김만배	16	3,000,000	감선교회	류홍열	28	50,000	송춘명(국민)
김만배	17	75,000	단기선교	소계	10건	800,000	
목민교회	17	300,000	감선교회	김주연	7	10,000	강은규
주사랑교회	18	1,450,000	감선교회	윤병돈	14	100,000	강은규
김상희	20	100,000	단기선교	서라벌교회	14	100,000	강은규
박수진	22	30,000	감선교회	최공호	14	50,000	강은규
김성수	22	200,000	단기선교	서미라	15	10,000	강은규
김문수	22	100,000	단기선교	최공호	15	50,000	강은규
최인	23	300,000	단기선교	정선영	21	10,000	강은규
오규호	23	100,000	단기선교	나정환	21	100,000	강은규
박규진	23	30,000	감선교회	강희영	22	10,000	강은규
SD건설	24	500,000	감선교회	수영로교회	25	100,000	강은규
강봉순	24	100,000	단기선교	김명순	26	40,000	강은규
서희홍, 김희은	24	100,000	단기선교	윤명길	28	100,000	강은규
온세교회	29	100,000	감선교회	김치현	30	50,000	강은규
문한옥	30	100,000	감선교회	문한옥	30	50,000	강은규
목자교회	30	100,000	감선교회	소계	14건	780,000	
소계	26건	20,787,000		덕암교회	29	200,000	강은규
배남순	6	20,000	송춘명(농협)	덕암교회	29	100,000	강은규
진해소망교회	7	100,000	송춘명(농협)	소계	2건	300,000	
거제제일교회	12	50,000	송춘명(농협)	함영애	10	5,000	최예순
윤병돈	14	200,000	송춘명(농협)	정기섭	12	50,000	최예순
영광교회	15	100,000	송춘명(농협)	제1남전도회	25	30,000	최예순
신명교회	18	100,000	송춘명(농협)	강금자	29	20,000	최예순
안양삼성교회	22	100,000	송춘명(농협)	덕암교회	29	200,000	최예순
최재욱	25	50,000	송춘명(농협)	소계	5건	305,000	
소계	8건	720,000		11월 수입계	65건	23,692,000	
				당기수입누계		195,971,700	
				전기이월		2,999,314	
				총 수입계		198,971,014	

# 후원자별 후원금액 명세

(2011년 12월)

헌금자	날짜	금액	비고	헌금자	날짜	금액	비고
양문교회	1	1,200,000	감선교회	함영애	12	5,000	최예순
잠실제일교회	2	100,000	감선교회	정기섭	14	30,000	최예순
김만배	4	500,000	감선교회	남전도회	19	30,000	최예순
성남교회	7	7,500,000	감선교회	강금자	21	20,000	최예순
주사랑교회	8	1,450,000	감선교회	덕암교회	26	200,000	최예순
방패(강은규)	17	800,000	감선교회	소계	5건	285,000	
목민교회	19	300,000	감선교회	김주연	5	10,000	강은규
방패(송춘명)	21	800,000	감선교회	캠보목장 2개	11	200,000	강은규
박수진	22	30,000	감선교회	윤병돈	12	100,000	강은규
박규진	23	30,000	감선교회	서라벌교회	14	100,000	강은규
예금이자	25	7,664	감선교회	서미라	15	10,000	강은규
목자교회	29	100,000	감선교회	정선영	20	10,000	강은규
문한옥	30	100,000	감선교회	나정환	20	100,000	강은규
온세교회	30	100,000	감선교회	수영로교회	23	100,000	강은규
무명	31	1,120,000	감선교회	윤명길	26	100,000	강은규
이현주	22	-500,000	감선교회	최공호	26	50,000	강은규
김만배	31	-2,770,000	감선교회	문한옥	30	50,000	강은규
소계	17건	10,867,664		소계	11건	830,000	
진해소망교회	5	100,000	송춘명(농협)	덕암교회	21	200,000	강은규
위용환	9	50,000	송춘명(농협)	덕암교회	22	100,000	강은규
윤병돈	12	200,000	송춘명(농협)	소계	2건	300,000	
영광교회	15	100,000	송춘명(농협)	특별헌금			
신명교회	15	100,000	송춘명(농협)	성남교회	17	7,500,000	감선교회
거제제일교회	16	50,000	송춘명(농협)	소계	1건	7,500,000	
최재욱	26	50,000	송춘명(농협)	정혜란선교사	20건	2,480,193	11월
삼성교회	26	100,000	송춘명(농협)	정혜란선교사	13건	890,000	12월
진해소망교회	28	200,000	송춘명(농협)	소계	33건	3,370,193	
소계	9건	950,000					
주혜정	1	10,000	송춘명(국민)				
회원동부교회	2	100,000	송춘명(국민)				
감계순	3	20,000	송춘명(국민)				
밀양교회	5	100,000	송춘명(국민)				
중앙제일교회	14	100,000	송춘명(국민)				
조미숙	15	20,000	송춘명(국민)				
해운동부교회	19	100,000	송춘명(국민)	12월 수입계	90건	17,652,857	
회원동부교회	20	100,000	송춘명(국민)	당기수입누계		213,624,557	
밀양(신광열)	20	100,000	송춘명(국민)	전기이월		2,999,314	
새누리교회	25	200,000	송춘명(국민)	총 수입계		216,623,871	

# 후원자별 후원금액 명세

(2012년 1월)

헌금자	날짜	금액	비고	헌금자	날짜	금액	비고
양문교회	10	1,200,000	감선교회	함영애	10	5,000	최예순
주사랑교회	11	1,450,000	감선교회	정기섭	12	30,000	최예순
김만배	11	1,700,000	감선교회	소계	2건	35,000	
목민교회	16	100,000	감선교회	주혜정	2	10,000	송춘명(국민)
성남교회	20	7,500,000	감선교회	남석교회	2	50,000	송춘명(국민)
리피에	20	450,000	감선교회	이상준	5	100,000	송춘명(국민)
박수진	25	30,000	감선교회	감계순	9	20,000	송춘명(국민)
박규진	25	30,000	감선교회	조미숙	16	20,000	송춘명(국민)
김만배	26	200,000	감선교회	소계	5건	200,000	
온세교회	30	100,000	감선교회	강문기(최형란)	4건	450,000	
문한옥	31	100,000	감선교회	허현(김소희)	3건	400,000	
소계	11건	12,860,000		정혜란선교사	15건	1,035,770	
김주연	5	10,000	강은규	소계	22건	1,885,770	
서미라	16	10,000	강은규				
정선영	20	10,000	강은규				
수영로교회	20	100,000	강은규				
최공호	26	50,000	강은규				
윤명길	30	100,000	강은규				
나정환	30	100,000	강은규				
서라벌교회	30	100,000	강은규				
문한옥	31	50,000	강은규				
김치현	31	50,000	강은규				
소계	10건	580,000					
박강덕	10	100,000	송춘명(농협)				
봉덕교회	14	100,000	송춘명(농협)				
평택산울교회	15	50,000	송춘명(농협)				
영광교회	16	100,000	송춘명(농협)				
거제제일교회	17	50,000	송춘명(농협)				
위용환	19	50,000	송춘명(농협)				
진태소망교회	20	100,000	송춘명(농협)	1월 수입계	64건	16,760,770	
최재욱	25	50,000	송춘명(농협)	당기수입누계		16,760,770	
신명교회	30	100,000	송춘명(농협)	전기이월		2,578,985	
소계	10건	700,000		총 수입계		19,339,755	

# 후원자별 후원금액 명세

(2012년 2월)

헌금자	날짜	금액	비고	헌금자	날짜	금액	비고
잠실제일교회	1	100,000	감선교회	주혜정	1	10,000	송춘명(국민)
한건희	2	1,090,000	감선교회	감계순	4	20,000	송춘명(국민)
양문교회	3	1,200,000	감선교회	유승운	13	50,000	송춘명(국민)
한건희	3	85,000	감선교회	성민교회	13	100,000	송춘명(국민)
목자교회	5	100,000	감선교회	조미숙	15	20,000	송춘명(국민)
주사랑교회	7	1,450,000	감선교회	회원동부교회	24	100,000	송춘명(국민)
에스디건설	7	210,000	감선교회	소계	6건	300,000	
에스디건설	8	500,000	감선교회	산성교회	5	200,000	강은규
성북교회	16	30,000,000	감선교회	김주연	6	10,000	강은규
목민교회	17	100,000	감선교회	서미라	15	10,000	강은규
김만배	20	200,000	감선교회	서라벌교회	19	100,000	강은규
박수진	22	30,000	감선교회	정선영	20	10,000	강은규
잠실제일교회	22	100,000	감선교회	수영로교회	24	100,000	강은규
박규진	23	30,000	감선교회	윤명길	27	100,000	강은규
문한옥	27	100,000	감선교회	문한옥	27	50,000	강은규
목자교회	27	100,000	감선교회	최공호	27	50,000	강은규
온세교회	28	100,000	감선교회	나정환	28	100,000	강은규
양문교회	28	1,200,000	감선교회	소계	10건	730,000	
김만배	29	3,500,000	감선교회	덕암교회	2	200,000	최예순
소계	19건	40,195,000		강금자	3	20,000	최예순
진태소망교회	6	100,000	송춘명(농협)	함영애	10	5,000	최예순
위용환	6	50,000	송춘명(농협)	제남전도회	20	60,000	최예순
삼성교회	7	100,000	송춘명(농협)	정기섭	23	30,000	최예순
박강덕	7	100,000	송춘명(농협)	강금자	24	20,000	최예순
영광교회	15	100,000	송춘명(농협)	덕암교회	27	200,000	최예순
봉덕교회	18	100,000	송춘명(농협)	소계	7건	535,000	
평택산울교회	20	50,000	송춘명(농협)	강문기(최형란)	5건	650,000	
감동교회	20	50,000	송춘명(농협)	허현(김소희)	3건	1,400,000	
최재욱	27	50,000	송춘명(농협)	정혜란	11건	640,075	
신명교회	27	100,000	송춘명(농협)				
삼성교회	28	100,000	송춘명(농협)				
소계	11건	900,000					
덕암교회	2	300,000	강은규(농협)	2월 수입계	78건	46,450,075	
덕암교회	27	300,000	강은규(농협)	당기수입누계		63,210,845	
소계	2건	600,000		전기이월		2,578,985	
				총 수입계		65,789,830	

## 광 고

1. 캄보디아의 바탐방, 꺼꽁, 뽏삿, 파일린지역의 선교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신 회원 교회와 후원자님들의 사랑의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풍성이 임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선교의 현장에서 날마다 복음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 또한 현지 선교비전트립을 통해 여러 모양으로 선교현장에 필요한 것들을 섬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의 아름다운 섬김과 협력을 통하여 캄보디아의 선교의 지경이 계속 활발히 확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3. 송춘명(현정미)선교사가 현재 사역중인 리온꾸어(보총수업비) 없는 학교만들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심으로 캄보디아 문맹퇴치에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선교지의 자립을 위하여 계사 2동을 지어 양계(육계)시험 농장을 시작하였습니다. (1차 각 계사에 병아리 300수)시험 농장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술적 지도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지역에 양계 농장을 할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5. 선교사님들의 사역내용과 사진들은 주사랑교회 홈페이지(www.jsc12.net) 선교게시판에서 볼 수 있습니다.
6. 캄보디아 단기선교 비전 트립을 계획하고 있는 교회나 후원자에게는 본회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캄선교회 후원계좌

**캄선교회 계좌: 농협 100028-55-002241 (김만배)**  
**강 은 규 계좌: 농협 787-02-330811 (이세희)**  
**정 혜 란 계좌: 국민 087-24-0296-606 (정혜란)**  
**송 춘 명 계좌: 농협 849-12-359652 (송춘명)**  
**국민 667-21-0684-599 (송춘명)**  
**최 예 순 계좌: 농협 100028-56-171891(최현민)**  
**은 영 기 계좌: 국민 967201-01-312415(은영기)**  
**(사)태스크계좌: 농협 100028-55-003009 (태스크)**  
**사무국장: 이영구 안수집사 (010-3269-1839)**



## 캄(Com)선교회 후원신청서

이름	개 인	성명:		교회의	교회명:
		년	월	일생(세)	경우
주소	집	(우: )			
	교회	(우: )			
전화	사무실			집	
	휴대전화			E-mail	
<b>캄(Com)선교회 후원</b>				일시불	
				월정액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우편 또는 FAX로 보내 주시고, 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106-6					
Tel : 02)409-7458, 6458				Com 선교회 회장 공용준 목사	
Fax : 02)409-4991				대표 김만배 목사	
E-mail: jscg12@daum.net / www.jsc12.net(주사랑교회)					